

“광주은행, 신뢰 바탕으로 지역 동반성장 밑거름 되겠다”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

고병일 광주은행장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발흥한 은행은 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중세 말에 이르러 이들 국가가 중상주의를 채택하고 해외 무역, 식민지 개척에 나서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발전했다. 그전에도 고리대금업체, 대금결제기관 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본격적으로 자본을 끌어 모아 국가나 기업, 개인에 빌려주거나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은행은 자본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되었다.

광주의 첫 은행은 1906년 7월 30일 전남과 경남 남해군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들어선 광주농공은행이다. 국책은행 성격으로 대한제국이 같은 해 3월 농공은행조례를 공포, 전국 11곳에 농공은행을 설립했는데, 그 중 하나였다. 자본금 10만 원으로 시작해 1913년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형욱이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임원에는 정낙교, 박하준, 현기봉, 감사역에는 지응현, 최원택 등 광주·전남에서 내노라하는 부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아쉽게도 광주농공은행은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8년이 지난 1918년 조선총독부의 식산은행 광주지점이 되어버렸다.

이후 조선인 자본가들이 만든 민족계 은행인 1920년 9월 창립된 호남은행이다. 엄혹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인을 배제하고 조선인들이 자본금 150만원을 마련해 설립했으며, 본점은 광주에 두고 목포·순천·장성·보성 등에 지점을 냈다. 1933년에는 부산 동래은행을 흡수합병하며 경상도까

지 업무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하지만 끝까지 일본 자본 참여를 반대하고, 일본인 직원 채용을 거부하면서 1942년 서울 동일은행으로 강제 합병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식산은행 광주지점과 호남은행의 1936년 말 기준 예금 인원(잔금)을 살펴보면, 식산은행 광주지점은 1146명(138만여 원), 호남은행은 1278명(215만여 원)이었다. 식산은행 광주지점에는 일본인이 681명, 조선인 448명, 외국인 37명이, 호남은행에는 조선인 981명, 일본인 321명, 외국인 39명이 각각 돈을 맡겼다. 식산은행 광주지점보다 호남은행의 규모가 더 컸고, 식산은행은 주로 일본인, 호남은행은 주로 조선인이 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자본 외부 유출되어 다른 곳에 투자되면 지역은 더 쇠락할 것
지자체 제1급고 지역은행 말고, 제2급고 경쟁 방안 도입 검토할 때

지역은행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23년이 지난 1968년 9월 17일이었다. 광주은행은 호남은행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의 상공인들이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아 설립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던 시절이다. 1969년부터는 지점을 내기 시작했고, 1975년 서울지점, 1986년 미국 뉴욕 첫 해외사무소, 1990년 광은리, 1996년 광은파이낸스 등을 설립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1996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1999년 8월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지방은행의 리더였다. 1997년 9월 동구 대인동 본점을 신축해 이전하고, 곧바로 IMF 외환 위기가 닥치자 지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본금 1000억 원 증자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여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0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버렸다. 이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02년에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우리은행에 흡수합병하려고 시도했으나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실패하기도 했다. 2014년 다시 한 번 광주은행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하고 2018년 하반기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년간 변함없이 광주·전남의 지역은행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금융약자, 지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광

주은행의 설명이다.
광주은행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의 굵직한 국제 이벤트마다 공식 후원을 자처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107개 지점을 운영하며 지역 거점 금융기관으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이 어려울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곳도 광주은행이다.
지역민의 희노애락과 함께 해왔으며, 지역민의 애정 없이는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지역 대표 은행 광주은행의 수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만났다. 그는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를 나와 광주은행에 들어가 평생 동안 광주·전남을 떠나본 적이 없다. 광주·전남, 광주은행 ‘토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입학 32년만(2023년)에 광주은행장에 올랐다.
▲전남대 경제학과 84학번으로, 원래 금융기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1991년 3월 졸업과 동시에 광주은행과 상업은행에 합격했는데, 광주은행을 선택했습니다. 대우도 더 좋았고, 장남이어서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 주가도 광주은행이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제 인생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장의 자리까지 올라 설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광주은행을, 동료와 선·후배들을 사랑해온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광주은행과 함께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완전 감자를 당해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함께 시위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들은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다. 지역민들이 증자에 참여해주시고, 저와 남은 동료들도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해 뛰어 들었다. 부실채권을 없애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한 푼이라도 광주은행에 넣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다시는 그런 일은 안 겪고 싶다. 다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애사심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주인의식이 남달라졌다. 직원들 간 끈끈함도 생겼다.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지역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면
▲10년 전의 일이다. 2014년 우리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분할 매각한다고 했을 때 지역 상공인들이 다시 매입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광주은행을 살 수 있는 곳이 JB금융지주 밖에 없었으며, 그 자회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다만 은행의 소유 개념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은행들도 외국계 자본이 대부분인 곳이 있다. 지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곳곳에 점포를 내 지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지역은행인 것이다. 대주주 변동일 뿐이지 광주은행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항토은행이며 지역과 지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자리하고 있다.
—지역은행 왜 존재해야 하나.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문화 차이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1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주최한 ‘제166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바수무쿨 유니버설문화원 원장이 ‘사업 성공을 위한 세계문화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이날 강연에는 140여명의 지역 경영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연은 인도의 인삿말의 뜻, 인도의 종교행사, 인도의 결혼식 문화, 음식문화 등을 설명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갖춰야 할 이해·존중의 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바수무쿨 원장은 “인도의 인삿말로 널리 알려진



‘나마스떼’라는 단순한 단어조차, 인도 특유의 종교 문화를 이해한다면 ‘나의 신이 당신의 신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도가 힌두교, 무슬림, 기독교, 불교, 자이나교, 민속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문화에서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를 비롯한 각 국가의 종교, 인종, 지방정부 정책, 카스트제도, 식습관 등이 모두 달라 지역별로도 접근법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 같은 차이점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총은 이날 강연에 앞서 조선대학교와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윤경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영산강축제 스마트 음수대 설치·운영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공)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친환경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를 설치, 운영했다.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축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냉·온수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는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 신뢰를 높이고, 자동 컵 세척기에 내장된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수돗물 음용 체험과 함께 환경교육 부스를 운영해 ▲친환경 수차발전기 만들기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인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정부 정책에서 발맞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축제에 친환경 이동형 스마트 음수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음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돗물 음용 홍보는 물론 탈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부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아파트 2만호 짓는다

‘부영타운’ 그랜드 오픈 행사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보인다. 부영그룹은 13일 “지난 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부영타운’ (조감도)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해외법인인 현재 추진 중인 2만 세대 규모 내 단지에 1474세대 부영타운을 우선 선보인다.
개막행사에 참가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한국형 아파트인 부영타운이 앞으로 프놈펜시의 랜드마크 자리 잡아 캄보디아의 주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영타운은 지하 4층·지상 21층 총 4개동 규모로 65㎡(568세대), 85㎡(608세대), 117㎡(298세대) 등 3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를 마치면 즉시 입주 가능하며, 외국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단지 내 상가 단지에 대형 스포츠센터(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와 중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우정 캄보디아 학교’가 조성된



다. 우정 캄보디아 학교는 연면적 1만5994㎡, 3개 동 5층 규모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간호대학, 노인복지시설 등 약 200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지난해 개교했다.
우정 캄보디아 학교에는 교민 자녀들을 위한 ‘프놈펜한국국제학교(KISPP)’도 들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그룹은 버스와 트럭, 교육용 차량, 디지털 피아노, 초등학교 건립기금, 의료차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이종근 회장은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으며, 경제계 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 지난해보다 하락

대기업 성과급 감소 영향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이 작년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성과급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13일 한국경

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2.2% 오른 404만6000원이다.
월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2.9% ↑)와

비교해 0.7%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임금 항목별로 보면 기본급 등 정액급여는 월평균 353만7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오른 반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월평균 50만9000원으로 5.7% 감소했다. 월평균 특별급여액은 지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증가했고, 대기업은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 114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1	12	21	26	35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57,758,285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5,058,902	100
3	5개 숫자일치					1,336,663	3,3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65,233
5	3개 숫자일치					5,000	2,718,563